

國際動向

歐·美·日 特許廳長官 회담

特許審査의 컴퓨터化 共同推進

유럽·美國·日本 3개 特許廳의 特許廳長官 회담이 오는 10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日本의 東京에서 개최된다.

이번에 열릴 회담에서는 特許審査의 컴퓨터化에 관한 共同研究 추진 등을 目的으로 개최되는데 東京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일이다.

또 3개 特許廳의 特許廳長官은 情報처리문제를 중심으로 特許制度의 조화와 심사촉진을 위한 협력체제의 확립에 관해서 논의한다.

그리고 日本 特許廳은 特許등의 심사지연이 미국과 유럽과의 통상마찰의 하나로서 제기되고 있어 이 문제를 이번 회담에서 심사촉진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이에 대한 理解를 구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는 심사대상 기술의 고도화, 복잡화에 수반하여 최근 先進工業國의 特許審査實務는 지금까지 없었던 극히 심한 상황에 놓여 있어 이와 같은 先進國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特許廳간의 협력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東京 회담에서의 중점적으로 논의될 사항은 人力의 不足과 情報의 洪水를 해결하기 위한 特許審査의 「페퍼 레스화」에 관해 공동으로 研究하기 위한 電算化된 情報의 交換과 표준화의 문제 등이 토의 된다.

또한 최근 先進國간에 급속히 부상되는 문제 중의 하나인 「特許制度의 調和」를 이루기 위한 조치도 있을 예정이다.

日, 特許出願 適正化지도

出願의 증대로 심사지연 방지

日本의 통산성과 特許廳은 최근 特許制度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등의 特許出願을 적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日本에서 特許出願, 審査請求의 증대에 비해 特許公告率이 낮아 特許制度 기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에서 시도된 것이다.

그리고 美國 등이 日本의 審査處理期間의 장기화로 이에대한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特許出願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 出願件數와 公告率에 대한 조사를 하여 질적인 향상을 기하도록 기업特許管理行動計劃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公告率이 높은 기업을 공개하고 ▲特許出願시 다항제 청구범위의 이용을 확대, 外國出願시 사전 조사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하며 이의 적정화 지도를 기업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세부적인 지도를 펴나갈 것이라고 한다.

종양 壞死因子 特許공개

日, 特許廳서 世界최초

종의 癌특효약으로 기대되고 있는 인간 TNF (종양 壞死因子)에 대한 物質特許出願내용이 최근 日本特許廳에 의해 世界最初로 公開돼 세계 醫藥業界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日本의 日刊工業新聞에 따르면 新日本製藥이 出願한 이 特許의 內容은 遺傳子組合 기술을 이용한 인간 TNF폴리펩티드와 前驅體 폴리펩티드 및 그 DNA로서 이 TNF의 아미노산數는 1백 55개이다.

西獨, 特許出願 80%가 中小企業

코멜츠 銀行 資料서 밝혀져

최근 西獨의 3大 銀行의 하나인 「코멜츠·뱅크」의 資料는 西獨 中小企業의 활력은 80년대에 들어서 특히 활발해 特許出願의 약 80%가 中小企業에서 차지하고 있어 新技術開發에 대한 中小企業人들의 높은 투자 의욕을 엿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